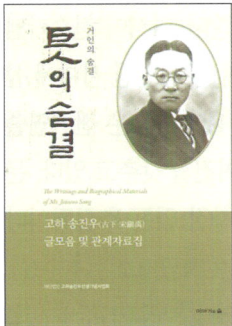


『거인(巨人)의 숨결: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글모음 및 관계자료집』 서평

기미년 3·1독립선언서에 이름 올리지 않은 17인 함태영·송진우·현상윤·최남선 역할 과소평가돼 이념 혼란과 리더십 부족으로 퇴행하는 정치상황 송진우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정치이념과 포용적 리더십 주목해야

글 김학준(단국대 석좌교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념의 혼란과 리더십의 부족으로 진전하기보다는 퇴행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은 걱정한다. 우리가 고하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라는 정치이념과 포용적 리더십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다.”

『거인의 숨결: 고하 송진우(古河 宋鎭禹) 글모음 및 관계자료집』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편, 이야기의숲, 2023).

기미년 독립선언서에 이름 올리지 않았던 17인 :
특히 고하 송진우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다시 생각한다

올해는 1919년 기미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항일독립운동 106주년의 해이다. 3·1운동을 말할 때,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민족대표 33인에 먼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에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문헌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는 것은 웬만한 의지와 용기 없이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암(義庵) 손병희(孫秉熙)와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을 비롯한 그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못지않게 존경받기에 충분한 지도자들이 있다. 선언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17인이 바로 그들이다.

그 17인에는 송암(松岩) 함태영(咸台永)을 비롯한 기독교 4인과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기당(幾堂) 현상윤(玄相允) 등 중양학교 교사 2인,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등이 포함된다. 이 17인에 대해 박찬욱(朴贊郁) 교수는 그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고하와 육당은 남강(南岡) 이승훈(李昇薰)과 교섭하며 기독교 인사들과 연락했고, 남강은 기독교 장로인 송암 함태영, 송암은 YMCA 간사 박희도(朴熙道)를 접촉하는 식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한 데 이어 “고하와 송암은 옥에 갇힌 사람의 가족을 돕는 등 뒷수습을 하면서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들 가운데 당시 중양학교 교장이던 고하는 중양학교 숙직실에서 일제 당국에 검거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고하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나, 함구로 일관하며 꺾끗하게 버텼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취조서(1919년 4월 18일), 경성지방법원 예심부의 예심결정서(1919년 8월 1일), 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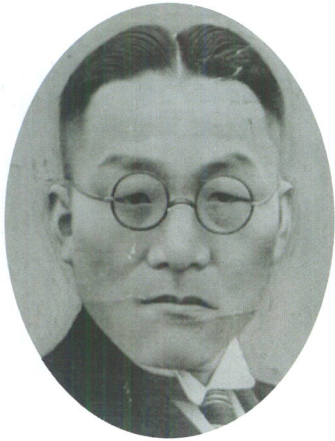


1917년 11월 북악산 자락 아래에 들어선 중양학교 본관(가운데)은 민족운동가들을 양성하는 장안의 명소가 됐다. 본관 오른쪽 아래로 3·1운동을 모의한 숙직실이 있었다(동아일보 제공).



송진우 등이 3·1운동을 준비, 협의했던 중양학교 숙직실 전경. 지금은 '3·1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서울경제 제공).

법원 특별형사부의 예심결정서(1920년 3월 22일) 등은 모두 고하를 ‘기독교 인사들과 연락한 모의 단체의 주모자’로 기록했다. 결국 고하는 1년 반의 미결감 생활을 마치고 1920년 10월 1일에 출옥했다. 고하는 1920년 3월 4일에 창간한 『동아일보』를 이끌면서 항일독립의 논조를 펴다가 1926년 11월에



고하 송진우(1889~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다시 구속되어 3개월에 걸쳐 복역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두 차례에 걸쳐 투옥된 기록을 남겼다. 고하의 항일정신이 이처럼 투철한 것을 알고 일제는 패망을 앞두고 고하를 비롯한 국내의 민족지도자들을 회유하거나 살해하려 하였다. 고하는 청병하면서 칩거하는 것으로, 특히 조선총독부의 치안권 이양제의 교섭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으로 맞섰다.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는 마침내 패망하고 조선=한국은 비록 분단과 함께 찾아온 것이기는 하지만 해방을 맞이했다. 이때로부터 흥탄에 쓰러진 1945년 12월 30일까지 137일간의 기간에 고하는 민족진영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국민주당 창당을 이끌고 수석총무로 봉직하면서 국권 회복과 정부 수립에 힘을 쏟았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이 시기에 있어서의 고하의 활동은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 자세히 분석되었다. 그렇기에 서평자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고하의 정치노선 또

는 그 노선의 기반이 된 정치이념에 대해, 위의 책에 게재한 박찬욱 교수의 「송진우의 삶을 통해 바라본 YMCA운동과 자유민주주의」, 강원택(康元澤) 교수의 「해방 후 고하 송진우의 정치구상」, 그리고 박명림(朴明林) 교수의 「송진우의 중용적 진보와 근대국민국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박찬욱, 송진우를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한 ‘포용력 있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로 해석

우선 박찬욱 교수는 고하를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자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한 ‘적극적이고 포용력 있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로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박찬욱 교수는 “고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여 대체하는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그것을 관리하고 규제하며 [...]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보완책으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택 교수는 고하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엄격한 지도자’였다고 논평하고 “고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시했고, 계급이든 개인이든 독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동시에 “고하는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좌파와 좌파까지 망라한 국내 주요 정치세력 간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매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고하를 “해방 직후의 전환기에 잃은 것은 민족적으로 큰 손실이 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박명림 교수는 고하가 평생의 동지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와 함께 해방 직후 건국노선의 이념으



서울시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송진우 동상과 부조 등 기념물(국가보훈부 제공)

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를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건국 이후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담론과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급진공산주의와 우파독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담론이자 운동이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고하가 제시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훗날 반독재투쟁과 4월혁명의 골간 정신이었다"라고 단정하고, "북한의 공산독재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 정부를 상념할 때 한국에서 이들 자유주의 그룹이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라고 논평

한 데 이어 "남한이 북한의 독재와는 크게 다른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데 이들 초기 자유주의 세력이 끼친 기여는, 제도와 사상 두 측면 모두에서, 크게 상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념의 혼란과 리더십의 부족으로 진전하기보다는 퇴행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은 걱정한다. 우리가 고하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라는 정치이념과 포용적 리더십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다. **순국**



필자 김학준

1943년 중국 심양에서 태어났다.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다.